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12/23기준)

김석환 |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seokhwan.kim@miraeasset.com

DOVES

NEUTRAL

HAWKS

Board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12/3)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의무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후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음. 또한 연준은 이중 위임에 다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처리할 수 있음



리사 쿡
이사

(11/20)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 금리를 보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 인플레이션 진전 둔화와 견고한 노동 시장은 우리가 인하 경로에서 멈출 수 있음을 시사.



마이클 바
부위원장/은행감독

(11/20) 정해진 임기를 모두 마칠 것. 자본,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기관 간 제정은 내년에 통화감독청(OCO),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새 동료와 협력할 예정.



필립 제퍼슨
부위원장

(10/9) 두 가지 임무에 대한 위험의 균형이 바뀜. 인플레이션 위험이 감소하고 고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은 균형을 이룸. 향후 회의마다 결정 내릴 것.



제롬 파월
의장

(12/18) 오늘의 조치로 우리는 정책 금리를 최고치에서 1%포인트 낮추었고 우리의 정책 입장은 이제 상당히 덜 제한적임.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10/14) 데이터 전체를 볼 때 통화 정책이 9월 회의에서 필요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해



미셸 보우먼
이사

(12/6)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눈에 띄게' 남아 있으며,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된 것으로 보임. 현재, 노동 시장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큰 우려로 보고 있음.

VOTERS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12/20) 이제 우리는 재조정 단계를 거쳤고, 다음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 다음 단계는 들어오는 정보를 살피며, Fed의 전형적인 점진적인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10/18) 중립 금리(3.0~3.5%)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을 것.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 미국 경제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존 윌리엄스
뉴욕

(12/20)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중립금리가 '약간' 더 높을 것으로 추정. 디스인플레이션 기초 지속될 것. 내년에 시행될 일부 정책들은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12/23) 이자율이 경제를 둔화시키거나 자극하지 않는 중립 수준에 가깝다고 추정하며, 당분간 경제 활동을 적당히 제한할 만큼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하에 반대함.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11/14) 노동 시장에서 나타난 냉각 추세가 정상화인지 약화인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알게 될 것.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 승리를 선언하는 데 있어 점진적이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

미국 연준의 경제전망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	장기
실질GDP	2.5	2.1	2.0	1.9	1.8
9월 전망	2.0	2.0	2.0	2.0	1.8
실업률	4.2	4.3	4.3	4.3	4.2
9월 전망	4.4	4.4	4.3	4.2	4.2
PCE 물가	2.4	2.5	2.1	2.0	2.0
9월 전망	2.3	2.1	2.0	2.0	2.0
Core PCE 물가	2.8	2.5	2.2	2.0	
9월 전망	2.6	2.2	2.0	2.0	
연방기금금리	4.4	3.9	3.4	3.1	3.0
9월 전망	4.4	3.4	2.9	2.9	2.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RB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12/20) 내년 이자율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높게 조정했지만, 향후 12~18개월 동안 차입 비용이 '훨씬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 11월 PCE 물가 데이터는 환영할 만함.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9/20) 고용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중 의무 사이의 균형. 이것이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과정을 시작할 이유. 인플레이션 정체와 노동시장 악화될 위험 있음.



수잔 콜린스
보스턴

(11/20) 현재 정책이 다소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완화는 필요. 회복성 있는 수요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진전 고르지 않을 수도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12/3)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낮추는 것을 선호하지만, 인내심 있는 접근 방식을 지지하며, 차입 비용을 너무 빨리 줄이는 위험이 너무 적게 줄이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음



로리 K. 로건
댈러스

(11/13) 폭넓게 협의된 모델에 따르면 중립금리는 2.74~4.60%로 추정.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믿지만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11/19) 지금이 통화정책의 제한성을 낮추기 시작하지만, 금리가 얼마 나 더 하락 할 지, 또 결국 어디에 정착할지 알 수 없음. 대규모 재정적자는 금리 상승 압력 요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11/25)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 12월 회의에서 25bp 인하 고려 합리적. 보복 관세로 인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 있음. 지속가능한 재정 경로 위한 조치 필요.

NONVOTERS

Alternate

※ 2025년 6월 말 퇴임
차기 총재 물색 중(9/4~)